## “걱정 이상의 은혜”

요즘은, 먹을 것을 걱정하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73년 전만 해도, 우리는 당장 한 끼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오늘 하루를 생존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자 걱정인 시대였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와 룻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도울 사람은 없지만,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에서,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변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룻의 근심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처럼, 룻은, 굶주림을 걱정하며 나선 발걸음 끝에, 걱정이 무색한,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내가 걱정한 것보다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은혜로 도우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의 밭에서 곡식을 주울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곡식 단 사이에서는 주우면 안 됩니다. 그곳은, 많은 곡식이 떨어지는 자리이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오히려, 그 자리로 룻을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도우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한 번이 아닌, 추수가 끝나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그 한계를 두지 않으시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로 왔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곡과 백과가 익어가는 이 계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모든 걱정을 알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추석
## 가정예배

대장로 한예수교회 예 산 교 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신 앙 고 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588장 ····· 다 같 이

1.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어냐
2.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임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3.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4. 너는 먼저 누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기 도 ····· 맡 은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룻기 2:14-21 ····· 다 같 이

14.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15.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16.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말 씀 ····· 걱정 이상의 은혜 ····· 맡 은 이

찬 송 ····· 589장 ····· 다 같 이

1.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2. 추수할 것 맡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3.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아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4.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후렴 : 무르 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주 기 도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